2013학년도 신입학 수시 2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 험 번 호		**성 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는 1문제당 1장씩 총 2장으로 작성하며, 2장의 답안지에 모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십시오. (연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재작성하십시오.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한 답안지는 '0'점 처리됩니다.

광운대학교

◆ 출제문제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한 다음, 제시문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가)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제시문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시오. (50점, 700자± 50자)

(가)

아시아는 하나다. 히말라야 산맥은 두 개의 유구한 문명, 즉 공자의 공동체주의를 가진 중국 문명과 베다의 개인주의를 가진 인도 문명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 눈 덮인 장벽도 '궁극과 보편'을 추구하는 아시아 공통의 이상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러한 이상이야말로 아시아인 모두가 공유하는 사상적 유산으로,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모든 위대한 종교를 창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현상과 특수'에 집착하면서 인생의 목적보다 수단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지중해나 발트해 연안의 사람들로부터 아시아인을 구별 짓는다. 페르시아의 시(詩), 중국의 도덕, 인도의 사상은 모두 고대 아시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공통의 생활이 발달하여, 각 지역마다 각기 독특한 꽃을 피웠지만 어디에도 엄밀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다.

아시아는 정신과 문명에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장차 사회와 조직에서도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통일을 분명히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위대한 사명이자 특권이다. 일본인에게 흐르는 인도-유목 민족의 피로 인해 일본 민족은 아시아 문명의 두 가지 원류를 흡수하여 아시아적 공동체 전체를 대표할 자격을 갖게 되었다. 왕조의 교체 없이 천황제의 통치를 이어온 비할 바 없는 축복, 정복된 적 없는 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등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아시아의 사상과 문화라는 신탁물(信託物)을 저장할 진정한 보고(寶庫)가 되었다. 이에 반해 왕조의 전복, 유목 민족의 침략, 격앙된 폭도들의 살육과 유린이 되풀이해서 온 땅을 뒤덮었던 중국에서는, 문헌과 폐허 말고는 당나라 시대 황제들의 영화(榮華)나 송나라 시대 귀족사회의 우아함을 회고할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아시아 문화의 역사적 자산을 일관되게 연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일본뿐이다. 일본은 송대와 원대의 미술품이나 사본을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망실된 지 오래기에, 현대의 중국학자 중에는 그들 자신의 고대 지식의 원천을 일본에서 찾는 이도 있다. 이처럼 일본은 아시아 문명의 박물관일 뿐 아니라, 아시아주의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민족은 옛것을 잃지 않으면서 새것을 받아들이는 비범한 정신적 특질을 지니고 있어 모든 변화 국면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아시아주의란 무엇인가. 동양의 여러 나라들이 일치단결하여 서양세력의 정복 야욕을 막는다 함이니라. 이러한 주장을 제창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첫째, 나라를 그르친 자이니, 이들은 위로 하늘을 속이고 아래로 사람을 속여 현재는 동서(東西) 두 문명, 황백(黃白) 두 인종의 경쟁과 대결의 시대라고 말한다. 둘째, 외국인에게 아첨하는 자이니, 이들은 아시아주의라는 요사스러운 말을 꾸며내어 우리 민족이 일본에 뺨을 맞고 피를 빨려도 같은 황인종이니 분통해하지 말라 한다. 셋째, 혼돈한 무식자이니, 이들은 원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식견이 없고 시세의 변화에 따라 안색과 태도를 바꾸기를 능사로 삼는 이들이다.

이 엄중한 열국 경쟁의 시대에 한국인이 민족주의를 제창하지 않고 아시아주의를 꿈꾸는 것을 어찌 노예의 어리석음이라 아니하리오. 민족은 주인이요 아시아주의는 손님이거늘, 오늘날 아시아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오히려 동양이 주인이 되고 민족은 손님이 되어 나라의 흥망은 내팽개쳐 둔 채 오직 동양만을 허황되게 지키려 하니, 슬프다, 어찌 그 어리석음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아시아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진실로 동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념을 이용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자 함이라 한다. 그러나 한국인 가운데 아시아주의를 이용하여 민족을 구하려는 이는 없고, 외국인 가운데 아시아주의를 이용하여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자들은 많으니 경계하며 삼가야 할 것이다.

<다음 장 계속>

(다)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보통의 대답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총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란 유럽인들이 오래 전부터 '오리엔트(Orient)'라고 불러온 유라시아대륙의 비유럽 지역,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식민화의 대상으로 간주한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을 뿐, 이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공통의 정체성이 본래 존재한 것은 아니다. 우선 '동남아시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 주변의 매우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지리적 영역을 포함하는데, 이 지명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영국이 전투지역을 분담하면서 영국군의 담당지역에 붙여진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중·일 3국 주민들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양식을 고수해왔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다. 화이(華夷)론적 세계관이 지배한 전근대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중화(中華)문명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친 것은 틀림없지만, 이 지역의 종교와 문화는 지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이었다.

'동아시아', '동아'와 같은 명칭은 19세기말부터 산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당시에는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의 산물인 '극동'이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이었다. '동아'가 국제적 용어로 통용되기 시작한 데에는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 등의 슬로건이 유포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인접한 조선과 중국에서부터 출발하여 북아프리카에까지 확대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군사와 통상, 외교 전략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일례로 1945년 이전 일본의 동양사학(東洋史學)은 식민지제국의 군사적·경제적 세력 확대와 더불어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끝에서 점차 서쪽과 남쪽으로 시야를 넓혀 조선, 만주, 몽고, 서역(西域), 남양군도(南洋群島)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면서 연구를 축적해갔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이들 지역과의 문화적 일체감이나 민족 간 연대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전략적 지향성을 강하게 반영한 침략주의적 영토 팽창과 패권주의적 지배 욕구의 산물이었다.

(라)

오늘날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가장 큰 요인은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초월한 경제적 역동성에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화가 촉진된 데에는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첫 번째 사건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 현상이다. 이로부터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과 일본자본의 동아시아 역내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비록 용도 폐기되었지만 '엔화 경제권'이라는 용어는 '기러기 모형'으로 불린 일본식 산업화 모델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화를 상징했다. 두 번째 사건은 탈냉전과 맞물린 중국의 제2차 개혁개방이다. 1990년대 이래 국제 노동분업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중국의 경제성장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비롯한 역내 경제 상호의존을 심화시킴으로써 지역화를 촉진했다.

동아시아의 지역화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담론을 낳았고, 이는 다시 제도적 차원의 지역주의 논의로 발전했다. 약 한 세기 전,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구도 속에서 아시아연대론이 품었던 대안적 문명과 질서에 대한 희망은 탈냉전과 더불어 '동아시아'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되살아났다. 이른바 '동아시아의 귀환'은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의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199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한·중·일 3국을 초청해 이루어진 ASEAN+3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공동체 건설은 각국 간의 강고한 민족주의적 대립을 비롯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치적·외교적 분열 경향과 경제적·문화적 수렴 현상이 상쇄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시장의 힘을 동력원으로 삼아 출항한 '동아시아 공동체'호가 곳곳에 산재하는 암초를 피해 순항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힘이라는 조타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동아시아 각국 시민사회는 국가가 해낼 수 없는 초국가적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내부의 대립과 갈등의 벽을 허무는 데 일조해왔다.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국경을 초월한 소통과 연대야말로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내생적 원천으로서,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 계속>

[문제 2]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적 강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시문 (마), (바), (사)를 읽고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때 내가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더 커지는 이유에 대해 논하되, 반드시 각 제시문에서 하나씩 총 세 가지 논거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50점, 700자± 50자)

(마)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뉴욕시에서 조수들 15명을 인도에 배치해두고, 길이 15m의 거리를 걸어가는 보행자 1,424명의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신호를 보내면 조수들 중 일부(1명에서 15명)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한 건물의 6층 창문을 정확하게 1분 동안 올려다보았다. 창문에는 흥미로운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밀그램은 이 실험 과정을 녹화하여, 나중에 필름을 보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조수들이 쳐다보는 쪽을 함께 쳐다본 사람들의 수를 세었다. 조수들 중 1명만이 건물을 쳐다볼 때 보행자 중 4%가 함께 쳐다봤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본 조수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를 따라한 보행자의 비율은 올라갔고, 최종적으로 조수들 15명 모두가 멈춰 서서 건물을 쳐다볼 때 실험 대상 보행자 중 40%가 이 행동을 따라했다.

(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흉내 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러면서 상대방의 감정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만약 친구가 즐거워하며 미소를 지으면 여러분도 미소를 지으며 즐거움을 느낀다. 또 친구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며 불안해하면 여러분도 덩달아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놀이공원이나 학교, 도서관, 거리, 경기장을 비롯해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재빨리 얼굴 표정과 목소리, 자세뿐만 아니라 감정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우리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는 비슷해진다. 이와 같은 감정 전이는 아마도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 나타난 뒤에 친족으로 확대되었다가 결국에 친족 외의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었을 것이다.

(사)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급여 조건만 다른 두 회사에 다니는 굴착기 기사 두 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다. 첫 번째 회사에 다니는 A기사는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동료들도 모두 250만원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회사에 다니는 B기사는 250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동료들은 270만원을 받는다. B씨는 자신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50점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GDP가 30,000달러이고, 소득 상위 10%가 국가 경제력의 90%를 차지하는 갑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5점이었다. 반면 국민 1인당 GDP가 10,000달러이고, 소득 상위 10%가 국가 경제력의 30%를 차지하는 을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75점이었다.

<끝>

◆ 출제의도

[문제 1] 해설(출제의도)

- 탈냉전과 글로벌화, 동아시아의 부상과 더불어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을 논제로 삼아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테스트해보려는 의도에서 출제했다.
- 제시문 (가)와 (나)는 근대 초기 일본의 아시아론을 대표하는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1862~1913)의 글과 근대 초기 한국의 민족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신채호(申采浩, 1880~1936)의 글을 원자료로 하여 문제의 취지에 맞춰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글이다. (가)는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주의적 관점에서, (나)는 약소국 한국의 자주독립론적 관점에서 아시아주의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양자 모두 자국중심주의(민족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 제시문 (다)와 (라)는 현대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담론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다)는 19세기~20세기 전반의 (동)아시아 담론이 서양과 일본 열강들의 침략주의와 패권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었음을 비판하고 있고, (라)는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국중심주의(민족주의)적 장벽을 넘어서 각국 시민사회의 소통과 연대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제시문 (가),(나),(다),(라)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대조하는 능력, 그리고 (가)와 (다), (나)와 (라)의 논리적 상관성을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문제 2] 해설(출제의도)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제로 삼아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테스트해보려는 의도에서 출제했다.
- 계층갈등 문제의 해결이 하위 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 성원들이 행복해 지는 길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수험생 본인의 경험과 무관하게 제시문의 내용 파악과 각 제시문들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는 “계층간 갈등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나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한 다음, 이렇게 파악한 세 주제를 목적한 주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답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 제시문 (마)의 주제는 타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사회적 영향력)은 사람의 수 즉 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바)의 주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감정을 따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 전이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제시문 (사)의 주제는 상대적 박탈감 즉 불행 혹은 불만이라는 감정은 내가 받는 사회적 처우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 즉 다른 사람의 처우와 비교해서 낮을 때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가 용어나 서술방식은 개인별로 다소 편차가 있더라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예시답안

[문제 1] 모범 답안

제시문 (가)는 아시아가 공통된 사상과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한 역사적 문명권으로서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주의를 구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나)는 아시아주의가 한국과 같은 약소국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열강의 계략에 불과하므로 현혹되지 말 것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아시아주의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지만, 양자 모두 자국중심주의(민족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제시문 (다)에 의하면 '아시아'는 유럽인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비유럽 지역에 대해 편의적으로 붙인 명칭으로,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한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가)의 주장도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민족들 간의 문화적 일체감이나 연대의식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주의와 패권주의와 결부된 것이기에, 진정으로 아시아의 공존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를 앞세운 (나)의 아시아주의 무용론 또한 전적으로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제시문 (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론은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역동성에 힘입어 부상하기 시작했지만, 자국중심주의(민족주의)를 앞세운 국가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708자)

[문제 2] 모범 답안

제시문 (마)에서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은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바)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흉내 내고 그러한 모방은 감정의 공유로 이어진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나의 감정에 전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사)에서 행복감은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혜택이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가 혹은 적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이는 행복감을 낮춘다.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과 차이가 클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불행하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대적 박탈감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이들의 행복감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사람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행복하게 생각할 가능성은 더 많이 줄어든다. 역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내가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723자)